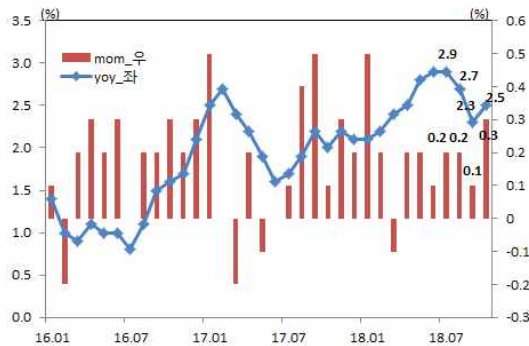


최근 美 인플레이션 동향 및 시장참가자들의 평가

1. 최근 미 인플레이션 동향

- 연초 이래 견조한 상승세를 유지하여 왔던 미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최근 시장의 예상을 하회하며 상당폭 하락하면서 인플레이션의 추세적 둔화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져 있던 가운데 금일 발표된 10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반등
 - 소비자물가(Headline CPI) 상승률(전년동월 대비)은 7월 2.9%에서 9월 2.3%로 하락하였다가 10월에는 2.5%(예상치 2.5%)로 상승
 - 다만 식품·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물가(Core CPI) 상승률(전년동월 대비)은 예상치(2.2%)를 소폭 하회하며 추가 하락(9월 2.2% → 10월 2.1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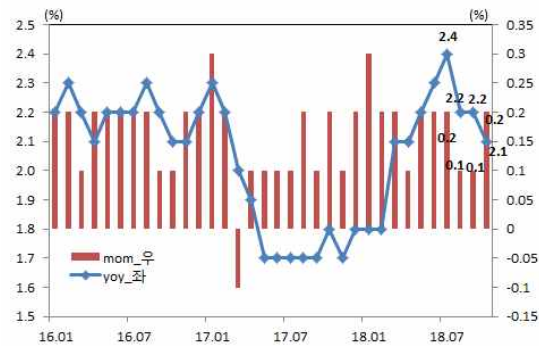
Headline CPI 상승률¹⁾



주: 1) 전월 대비는 계절조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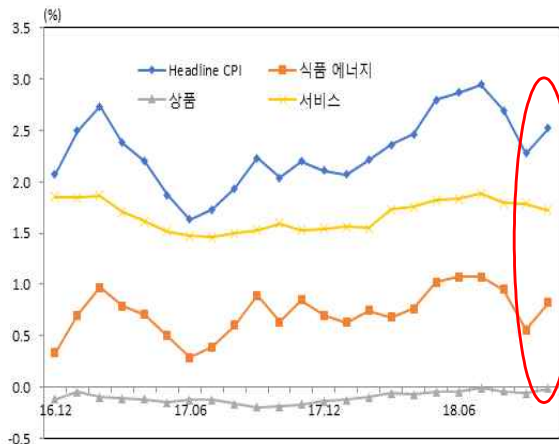
자료: Bureau of Labor Statistics

Core CPI 상승률¹⁾



-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반등한 것은 8~9월중 주요 둔화요인으로 작용하였던 에너지가격과 상품가격이 회복된 데 주로 기인
 - 9월중 편제방법 변경과 계절요인이 맞물리며 큰 폭 하락(전월 대비, -3.0%) 하였던 중고차 가격이 시장의 예상대로 반등(+2.6%)하며 상품(commodities) 가격 상승을 견인
 - 다만 서비스가격(services)의 경우 전월 다소 부진하였던 자가주거서비스(Owner's equivalent rent of residences) 가격의 상승(전월 대비, 9월 +0.2% → 10월 +0.3%)에도 불구하고 숙박요금 하락(-2.1%) 등이 이를 상쇄하며 부진흐름을 지속

CPI 상승률(전년동월 대비) 및 주요 구성항목의 기여도



구성항목별 CPI 상승률(전월 대비, 계절조정)

	구성비중	18.7월	8월	9월	10월
헤드라인 CPI	100	0.2	0.2	0.1	0.3
▪ 식품	13.2	0.1	0.1	0	-0.1
▪ 에너지	8.0	-0.5	1.9	-0.5	2.4
▪ 근원 CPI	78.7	0.2	0.1	0.1	0.2
· 상품	19.5	0.1	-0.3	-0.3	0.3
(의류)	3.1	-0.3	-1.6	0.9	0.1
(신차)	3.7	0.3	0	-0.1	-0.2
(중고차)	2.3	1.3	0.4	-3.0	2.6
(의약품)	1.7	-1.1	-0.3	-0.1	-0.1
· 서비스	59.2	0.3	0.2	0.2	0.2
(주거)	32.9	0.3	0.3	0.2	0.2
<OER>	23.7	0.3	0.3	0.2	0.3
(의료)	6.9	0.1	-0.2	0.2	0.2
(운송)	5.9	0.5	0.3	0.5	0.1

자료: Bureau of Labor Statistics

2. 시장참가자들의 평가

- 주요 투자은행들은 예상대로 중고차가격이 반등하고 소비자물가지수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가주거서비스(OER)의 가격 상승률이 추세 수준을 회복한 가운데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상승함에 따라 10월 CPI가 대체로 예상에 부합한 무난한 내용으로 평가
 - 다만 최근 타이트한 고용시장 여건이 지속되는 가운데 임금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서비스를 중심으로 서비스가격이 상승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다소 기대에 못 미치는 점으로 지목(JPMorgan, BoAML)
 - 아울러 10월중 상품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한 담배, 가구 가격도 일시적 상승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(Goldman Sachs)
- 한편 일부에서는 중기적으로 높은 임금상승률이 결국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단기적으로는 달러화 강세 및 에너지가격 하락이 소비자물가의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(JPMorgan, Barclays)
 - 특히 가파른 유가하락세에 영향받으며 헤드라인 CPI 상승률이 연말 또는 내년초까지 하락하며 2%를 하회할 가능성도 제기(HSBC)
- 연준 통화정책과 관련하여서는 인플레이션*이 물가목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변동하는 가운데 통화정책 기조가 중립적인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는 연준이 정책금리를 계속 인상할 것으로 전망
 - * 10월 Core PCE 상승률(전년동월 대비)은 1.8%(9월 2.0%)에 그칠 것으로 전망
 - 다만 통화정책이 중립적인 수준에 가까워질수록 지표의존도(data dependency)가 높아지겠으며 내년 하반기 이후의 금리인상 지속 여부는 인플레이션 수준에 좌우될 것으로 예상(JPMorgan)